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29일 미네소타와의 원정경기에서 7-7로 맞선 9회 글렌 퍼킨스를 상대로 시즌 6호포자역전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마무리 킬러 ‘강정호’

9회 132m짜리 결승 홈런... 피츠버그 8대7 승리 이끌어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역전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강정호는 29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타석 4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사구로 경기를 마쳤다. 강정호는 7-7로 맞선 9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뒤 미네소타 불펜투수 글렌 퍼킨스의 시속 84마일(135km)짜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비거리 132m의 대형 솔로포를 터뜨렸다. 그의 시즌 6호 홈런포다. 강정호의 홈런으로 피츠버그는 역전에 성공했고, 끝까지 점수를 지켜 8-7로 승리했다.

앞서 강정호는 2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미네소타 선발 마이크 펠프리를 상대로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0-1로 뒤진 4회초 2사 1루에서는 펠프리의 시속 93마일(150km)짜리 싱커를 공략해 우전 안타를 쳤다. 후속타 불발로 추가 진투하지는 못했다. 강정호는 2-2로 맞선 6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다. 시즌 13번째 사구로, 강정호는 이 부분 메이저리그 공동 2위다. 이후 3루까지 진투한 강정호는 트레비스 이시카와의 좌전안타 때 역전 득점을 올렸다. 그는 8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바뀐 투수 케이시 피엔과 폴 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시속 88마일(142km)짜리 슬라이더를

받아쳤지만 중견수 플라이 아웃됐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86에서 0.289(263타수 76안타)로 올랐다. 피츠버그는 3-3으로 맞선 7회초 그레고리 폴랑코의 삼진이 3루타가 나온 데 이어 폴랑코가 홈까지 밟으면서 7-3으로 앞섰지만 7회말에 4점을 내줘 다시 동점이 됐다. 하지만 강정호의 극적인 결승 홈런으로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강정호는 수비에서는 하나의 실책을 기록했다. 0-1로 뒤진 3회말 무사 1루에서 조 마우어의 빠른 땅볼 타구를 잘 잡았지만 불안정한 자세로 2루 악수구를 하면서 시즌 9번째 실책을 기록했다. 유격수로서는 5번째다. /연합뉴스

‘1000’ 끝냈다

1000일의 기적을 만든 KIA 김원섭(38)이 ‘40’에 도전한다. KIA의 베테랑 외야수 김원섭은 지난 28일 SK와의 홈경기에서 극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선발 명단에서 빠졌던 김원섭은 7회 1사1루에서 김호영을 대신해 타석에 들어가면서 10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투 볼 상황에서 투입된 그는 볼넷을 골라내며 임무를 완수한 뒤, 9회 1사 1-2루에서는 SK 마무리 정우람을 상대로 끝내기 3점포를 터트리면서 1000경기 출장 날을 잊을 수 없는 날로 만들었다. 올해로 15년차. 팀의 주축 선수로 이름을 알려왔던 것을 감안하면 1000경기는 늦은 기록이다. 그러나 만성간염 등으로 어렵게 야구 인생을 이어온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기록이다. 1000경기가 쌓인 날 그는 끝내기 홈런을 날리며 자신과 동료들에게 축복 같은 하루를 선사했다. 김원섭은 “다른 선수들에게는 1000경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만성간염도 있고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기록이다. 1000경기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끝내기 행운까지 겹쳤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묵묵히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해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룬 1000경기이자 끝내기 홈런이라 더 감격스러운 날이었다. 김원섭은 “가족들이 경기장에 왔는데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 것 같아서 기



1000경기 끝내기포 김원섭

“건강한 후배들 부러웠죠 야구 포기하려고 할 때 김기태 감독님 만난 건 야구 인생 막바지에 큰 박마흔에도 야구 하고 싶어”

분이 좋다”며 활짝 웃었다. 김원섭은 소문난 야구쟁이다. 안정된 수비와 빠른 발 등 타고난 야구 센스에 지독한 훈련까지 더해 자리를 지켜왔

‘40’ 시작이다

다. 노력과 열정에도 부족했던 것은 딱 하나 ‘몸’이었다. 만성 간염으로 한 번씩 위기를 맞으면서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던 시간이 많았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병마가 야속했던 그는 건강한 후배들이 부럽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다. 타고난 몸을 가지고도 부족한 열정 탓에 언저리를 도는 후배들을 보며 “내가 저 몸이었으면...”이라는 아쉬움으로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뒷밭의 발목 부상도 있었다. 2013년 6월 베이스를 잘못 밟으면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팔꿈치 수술까지 하면서 그의 자리가 좁아졌다. 베틀 끝에 김원섭은 김기태 감독을 만났다. 스프링 캠프에서 김원섭은 “야구 인생 막바지에 큰 복을 받은 것 같다”는 말을 했었다. 베틀과의 경험과 실력을 존중해주는 사령탑의 배려 속에 올 시즌을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놓으려던 야구를 다시 붙잡았다. 준비했던 것에 비해 전반기 결과가 좋지 못해 속을 태우기도 했지만 그는 의미있는 날 가장 멋진 홈런으로 믿음에 보답했다. 김원섭은 “대타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1000경기 출장 축하한다고 하셨다. 야구를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했었다. 감독님이 안 계셨다면 야구를 그만뒀을지도 모르겠다”며 “당장 내년 시즌도 생각할 수 없이 하루 하루를 살고 있지만 40살까지 야구를 하고 싶다”며 또 다른 도전을 이야기했다. /김여울기자 wool@

런던올림픽 금메달 오진혁

세계양궁연맹 선수위원 선출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오진혁(현대제철)이 세계양궁연맹(WA)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오진혁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 경기장에서 26~27일 선수들이 직접 투표한 결과 리커브 남자부문에서 124표를 획득, 75표를 받은 멕시코의 후안 르네 세라노를 물리쳤다고 대한양궁협회가 29일 밝혔다. 선수위원회는 리커브와 컴파운드 부문에서 남녀 각각 1명씩 총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임기까지는 현 국가대표 코치를 맡은 한승훈(당시 현대제철)이 선수위원회 컴파운드 남자부문 위원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여자리커브, 세계양궁 결승행 불발

러시아에 져 일본과 3,4위전

남단체·혼성은 은메달 확보

한국 양궁 대표팀이 2015 세계양궁연맹(WA) 세계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단체전에서 결승행에 실패했다. 기보배(광주시청)·최미선(광주여대)·강재영(경희대)이 팀을 이룬 여자 대표팀은 28일(현지시각)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리커브 단체전(6발 4세트) 준결승에서 러시아에 패했다. 여자팀은 세트점수 4-4 동점 상황에서 선수들이 한발씩 화살을 쏘 승부를 가리는 타이브레이크 대결에 나섰지만 27-28로 아깝게 졌다. 한국은 3, 4위전에서 일본과 맞붙게 됐고, 결승전에는 러시아와 인도가 올랐다. 리커브 남자 단체전과 혼성단체전(4발4세

트)에서는 은메달을 확보했다. 구본찬(안동대)·오진혁(현대제철)·김우진(정주시청)이 나선 남자 대표팀은 8강에서 스페인을 5-1, 4강에서 미국 5-1로 가볍게 물리치고 이탈리아와 결승에서 만난다. 기보배와 구본찬이 출전한 혼성단체전에서는 8강, 4강에서 모두 4-4 동점을 기록, 타이브레이크 대결 끝에 5-4 승리를 거두며 관록을 과시했다. 기보배-구본찬은 8강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18-16, 4강에서 중국을 상대로 19-17로 타이브레이크 승리를 이끌어냈고, 결승에서 대만의 린스자-귀정웨이와 자웅을 겨룬다. 올림픽 종목이 아닌 기계활 컴파운드 경기 단체전은 남녀 모두 결승에 오르지 못했으나 혼성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한국은 다음달 1일 컴파운드 종목과 2일 리커브 종목에서 메달에도 도전한다. /연합뉴스

김기태 감독 “9회 터질 것 6·7회에 터지면 얼마나 좋아”

덕아웃 T 특독

▲어제는 많이 못 봤어요. = 28일 김원섭은 1000경기 출장 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 SK 마무리 정우람을 상대로 한 두 번째 끝내기 홈런. 2009년에도 9회 2사 만루에서 정우람을 맞아 역전 끝내기 홈런을 터트린 적이 있다. 홈런 장면을 반복해서 봤을 정도로 김원섭이 짚는 최고의 경기였다. 이번에는 1000경기 출장까지 더해진 경기. 그러나 김원섭은 “2009년에는 영상을 한 500번 돌려본 것 같은데, 어제는 피곤해서 많이 못 보고 잤다”고 웃었다. ▲감상문을 썼어요. = 2009년을 떠올리게 한 김원섭의 끝내기 홈런. 덕아웃에서 2009시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SK 내야수 최정우가 투수로 등장한 경기도 빠지지 않았다. 고졸 2년차 박찬

호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TV로 봤다. (안)치홍이 형이 3루타를 친 기억이 난다”고 언급하자 고영우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감상문을 썼다. 감독님께서 야구를 보고 감상문을 쓰는 걸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이건 아니다. = ‘악’소리가 절로 나오는 짐통 더위였다. 29일 낮 기온이 34도를 기록하는 등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왔다. 훈련을 하러 경기장으로 나온 선수들 입에서는 한마디씩 터져나왔다. 외국인 선수들은 “핫”을 외쳤고, “최고다 최고, 이걸 아니다” 등의 말과 함께 무더운 여름날의 훈련이 시작됐다. ▲6·7회에나 터지지. = 올 시즌 KIA는 끝내기의 팀이 됐다. 안방에서 거둔 24승 중 6승을 끝내기로 장식했다. 9회 집중력 있는 타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기태 감독은 “감독 입장에서는

9회 터질 것 6·7회에 터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웃음을 터트린 뒤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안 놓고 경기를 해주고 있다. 어제도 2시간 20분 정도 지고 있다가 마지막 10분 정도에 이겼다”며 미소를 지었다. ▲마음하고 몸 상태가 다르더라. = 마음 같지 않은 주투였다. 고졸 신인 황대인은 28일 SK에이스 김광현을 상대로 우전 안타를 때린 뒤 두 번째 타석에서도 우중간을 갈랐다. 낙타 2루로 간 황대인은 중견수 김강민이 주축하는 사이 3루까지 내달렸지만 아웃이 됐다. 김기태 감독은 “마음하고 몸상태가 다르더라”면서도 “센터, 우중간, 좌측으로 다 잘 쳤다. 첫 타점도 올랐다”고 황대인의 공격을 칭찬했다. 불꽃 타격은 선보였지만 총아리 근육통으로 교체됐던 황대인은 29일 스타팅 명단에서는 빠졌다. /김여울기자 wool@